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09.30(금) ~ 2022.10.06(목)

제공일시 2022 10 1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09.30(금) ~ 2022.10.06(목)

제공일시 2022.10.1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398.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친환경 장벽 쌓아 中 희토류 견제... K-배터리도 탈중국 속도

-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중국산 배터리·광물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EU가 ‘유럽 주요 원자재법’ 제정 방침을 밝혔음
- 이는 유럽에서 제조·판매할 제품에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 희토류 등 원재료가 사용돼야 한다는 것으로, 친환경을 주요 기준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중국 희토류 업체들을 배제하겠다는 의미임
- EU는 높은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핀란드·세르비아 등 역내 자원 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주요 원자재법에는 광물 생산 과정의 친환경성, 광산 인부 및 주변 주민들의 건강상태 등 복합적인 기준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럽에 생산기지를 둔 K-배터리 3사의 원재료 탈(脫)중국 전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사아투데이, 2022.10.03) 박지은 기자

2. EU, 화석연료 기업들에 횡재세 합의... 200조 규모

- 유럽연합(EU) 에너지장관들은 30일, 화석연료 회사들의 이익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익세)’ 부과를 포함해 에너지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채택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전역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EU 회원국들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기업들을 돕기 위해 횡재세를 부과해, 1400억 달러(200조9000억원)를 모금하자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합의했음
- 이 조치에는 석유, 가스, 석탄을 생산하거나 정제하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잉여 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포함돼 있으며, 다음 주부터 곧바로 발효될 계획임
- 하지만 휘발유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채 논의를 계속하고 있음

(시사뉴스, 2022.09.30) 김성훈 기자

3. EU, 28조 자금 조달 동의

-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러시아 화석 연료에 대한 EU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공급을 다양화하는데, 약 200억 유로(약 28조 3174억원)의 기금을 모아서 분배하는 데 동의했다고 4일(현지시간) 독일 공영 방송 도이치벨레가 보도했음
- 특히, EU 재무장관들은 러시아의 석유, 가스, 석탄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EU 국가에 자금을 할당하는 방식에 동의했음
- EU 혁신 기금에서 약 150억 유로를 인출해 러시아 화석 연료에 대한 EU 의존도를 줄이는데 자금을 마련하고, 나머지 약 50억 유로는 EU 탄소시장의 ‘시장 안정 예비비’를 사용할 예정임
- 발디스 돔보로브스키 EU 경제 집행위원은 트위터에 “가장 중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자해 EU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고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음

(파이낸셜뉴스, 2022.10.05) 박소현 기자

1. 미 EPA, 전기차 재생가능 연료공제 제안

- 로이터는 미 환경보호청(EPA)가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에 대해 전기차가 재생가능연료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단독보도했음
- 전기를 생산한 재생연료표준(RFS)에 포함시키는 것은 10여년 전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EPA는 다음 주말까지 승인을 받기 위해 제안서를 백악관에 보낼 것으로 예상됨
- 전기차 산업을 RFS에 포함시킬 경우, 현재 옥수수 에탄올 논쟁, 즉 바이오연료 논쟁에 또다른 큰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임
- 보조금이 자동차 충전회사나 재생가능 바이오가스 매립지 관련 산업으로 확산될 수도 있음

(Reuters, 2022.10.06) Stephanie Kelly, Jarrett Renshaw 기자

2. 2027년까지 농업생산 30% 스마트화... 직불금 5조 단계적 확대

- 정부가 걸음마 단계인 스마트농업을 2027년까지 전체 농업생산의 3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발표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원예와 축사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보급하고, 간척지에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농업직불제를 다양화하고, 규모도 지금의 두 배에 달하는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임
- 또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보육센터 4곳 운영,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스마트농업 특수대학원과 계약학과도 신설 등도 추진할 예정임
- 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며, 수직형 스마트 온실 설치장소 확대 등 민간주도 스마트농업 확산에 필요한 규제개선도 나설 예정임

(뉴시스, 2022.10.05) 오종택 기자

3. “반도체 공급망 강화” 유럽도 나섰다... ST마이크로 新공장 설립

-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제조시설 확보에 나선 유럽연합(EU)이 스위스 전자업체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이탈리아 신공장 건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음
- EU가 지난 2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내놓은 이후 첫 결과물로, 유럽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한 발 내디딘 것으로 풀이됨
- 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EU 회원국 지원 규칙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경제회복기금(RRF)을 활용해 ST마이크로가 이탈리아 시칠리아 카타니아에 반도체 제조시설을 짓는 것을 지원하는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음
- ST마이크로는 이 공장에 총 7억3000만유로(약 1조300억원)를 투입하는데, 이 중 2억9250만유로는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지원받음

(아시아경제, 2022.10.06) 정현진 기자

1. [기후위기와 산업] 네슬레 기후위험에 커피산업 10억 달러 투자

-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은 기후변화로 인해 커피 사업이 위협받고 있으며, 2050년까지 커피 재배에 적합한 지역이 50%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음
- 세계 최대 커피 회사인 네슬레(Nestle SA)는 네스카페 브랜드를 공급하는 농부들에 보다 지속 가능한 농업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음
- 네슬레는 최상의 커피 심기 기술 교육과 토양 보호를 위한 덮개 작물 심기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며, 네스카페 커피콩을 공급하는 50만 명 이상의 농부들로 이뤄진 거대 네트워크와 이를 위해 협력하는 공급업체 수를 최소 20만 개로, 현재의 두 배로 늘린다는 계획임
- 네슬레의 커피 사업 책임자인 데이비드 레니는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30년 안에 커피 농장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재경일보, 2022.10.04) 장선희 기자

2. 브룩필드, 란자테크에 10억 달러 플랜트 건설기술 투자

- 란자테크는 탄소플 포집한 후 지속가능한 연료, 식물, 포장재 등 소재로 변환하기 위한 상업용 규모의 생산 플랜트 건설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브룩필드와 자금제휴를 발표했음
- 란자테크는 2005년 설립된 탄소포획 소재회사로, 이 기술은 제철소 등에서 포집한 탄소를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의류소재, 세탁세제나 가정용클리너 소재 등으로 변환함
- 첫 번째 2개의 상업용 공장은 3000만 갤런의 에탄올을 생산했는데, 이는 15만미터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중 방출을 상쇄하는 것과 같음
- MS 빌게이츠도 란자테크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북미에서 매우 주목받는 탄소벤처 중 한 곳임

(ESGToday, 2022.10.04) Mark Segal 기자

3. 맥쿼리도 탄소상쇄 컨설팅 EP카본에 투자

- 맥쿼리 그룹의 상품 및 글로벌 시장 부문이 EP Carbon 확장을 지원하고 맥쿼리의 자발적 탄소상쇄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컨설팅회사 에코카본 오프셋파트너 EP Carbon 투자를 발표했음
- 자발적 탄소상쇄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선점 투자가 상당히 많아지는 가운데, 맥쿼리 또한 이에 대해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 차원으로 전망됨
- 2010년 설립된 EP 카본은 자연기반 탄소상쇄 프로젝트 개발, 자연보존, 복원, 농업 및 산림 프로젝트에 관한 운영을 지원하고, 지리공간 분석, 복잡한 탄소계산 등의 기술을 보유한 회사임

(ESGToday, 2022.10.06) Mark Segal 기자

1. 전경련 ESG 키워드 트렌드 변화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내놓은 ‘ESG 키워드 트렌드 변화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기업들의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협력사 ESG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책적 지원도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음
- 보고서는 2020년 1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11개 분기의 ESG 이슈에 대한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ESG 최대 관심 이슈는 친환경·탄소중립·보고서·(평가)등급·중소기업으로 나타났음
- 전경련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난해 1분기까지는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같은 해 2분기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두드러졌다고 전했음
- 전경련 관계자는 “탄소중립 등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ESG 관리 역시 주요 수출기업이 당면하게 될 ESG 이슈로 언급하면서, 국내 기업이 공급망 내 협력사 ESG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음

(뉴스스, 2022.10.06) 동효정 기자
(전경련 보도자료)

2. 무디스 “자연자본 의존 부문 1조9천억달러 규모 크레딧 리스크에 노출”

- 토지, 항공, 물과 같은 천연 자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의존하는 9개 부문이 1조9천억달러에 이르는 크레딧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Moody's Investors Service)가 경고함
- 자연자본은 경관, 공간, 자연의 평화와 같은 생태계 자산으로 에너지, 광물, 열대, 대기 등이 있음
- 무디스는 금속 및 탄광, 석유 및 가스, 건축 자재, 환경 서비스 및 폐기물 관리, 철강, 축산 및 농업을 포함하는 고위험 영역은 실질적인 금융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속한 회사들이 자원을 잘못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음

(연합뉴스, 2022.10.01) 배수연 특파원

3. 獨, 화학기업 바스프 ‘재생수소 생산’에 1천900억원 투입

- 독일이 자국의 글로벌 화학기업인 바스프(BASF)의 ‘재생가능 수소’ 생산 지원을 위해, 1억3천400만 유로(약 1천900억 원)의 국고를 투입할 예정임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일 정부의 국고보조 계획안을 승인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음
- 바스프는 독일 루트비히스하펜에 위치한 본사에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대형 전해조를 설치할 계획임

(연합뉴스, 2022.10.04) 정빛나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09.30(금) ~ 2022.10.06(목)

제공일시 2022.10.1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398.7675

가스 가격상한제, 스코프3 의무공시화 등 EU 신규 정책 도입과 논의 중... 산업에 어떤 영향 미칠까

- EU 집행위원회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전력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의 가격을 제한하는 '가스가격 상한제'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지난 4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이를 두고 EU 일부 국가에선 충분한 에너지 수급을 방해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며, 업계는 국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횡재세 등 세금을 활용해 최빈층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함
- EU의 에너지 집행위원인 카드리 심슨(Kadri Simson)은 "다음 조치는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러시아 침공사태 때문에 급등한 가스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EU는 에너지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스 가격을 제한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첫 번째는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인 TTF(Truck To Ship)와 관련해 유연하게 가격을 제한하는 방안임. 두 번째는 EU 차원의 프레임워크를 출시해 가스 수요를 낮추고 전력 생산에 사용될 가스의 가격을 제한하는 방안임
- EU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12개국은 지난주 모든 가스 도매 기업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함. 한편 유럽의 최대 가스 구매국인 독일과 네덜란드는 반대하고 있음
- 글로벌 석유기업인 셸(Shell)은 EU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셸의 CEO인 벤 반 뷰어덴(Ben van Beurden)은 지난 4일 에너지회의에서 "EU는 기업에 부과한 세금으로 취약계층이 에너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가스 가격 상한제로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밝힌바 있음. 그는 "유럽의 가스 시장에 의미 있는 개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해결책은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함
- 한편 일부 EU 회원국은 지난주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승인함. 영국은 지난 5월 석유·가스 기업에 횡재세를 도입함. 지난 9월에는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약 1,000억 파운드(약 161조 원)의 보조금을 배정했는데, 재원은 석유 기업에 대한 부담금이 아닌 차입하는 방식으로 마련함
- EU에서 내년에 금융기관에 대한 스코프 3(Scope 3) 배출 의무 공개 요건이 발효되면 자동차 업계의 가치 평가 및 매각가능성 등 자동차 부문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옴
- 유럽 NGO '운송과 환경(T&E, Transport&Environment)'이 최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의 전 세계 배출량은 그들이 공시한 양보다 평균 5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동차 산업은 금융 기관에 대한 스코프3 배출량에 대한 EU의 의무적인 공시 요구사항이 내년에 시행될 때 평가 및 심지어 매각 가능성에 대한 가격 하락의 파고를 감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함
- EU가 부과한 스코프3의 공개 의무화는 자동차 산업에 배출가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새로운 종류의 압력이 될 것임. 금융감독 당국은 그린워싱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의 일환으로 데이터의 잘못된 표시에 대한 허점을 좁혀왔음
- 배출량 보고서의 정확성, 특히 스코프3의 범주는 ESG를 지향하는 자동차 분야의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뜨거운 이슈로 보임. 노르웨이의 스토어브랜트 자산운용은 기후 문제에 대한 로비와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지연되는 것과 같은 문제에 대해 이미 도요타에 주주 관여(engagement)를 해오고 있다고 지속가능한 투자 책임자인 카밀 자벨스키(Kamil Zabielski)가 밝힘

(임팩트는, 2022.10.06) 양윤혁 기자

(임팩트는, 2022.10.05) 홍명표 기자

- 새로운 T&E 보고서에 의하면 자동차업체들의 글로벌 배출량은 현대 기아차와 BMW의 경우 보고한 것보다 실제로는 평균 50% **높으며, 현대기아차의 경우 기존 공시자료보다 115% 많았으며, BMW는 80%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EU는 금융기관들이 스코프3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새로 도입하게 되면,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노출로 자산 관리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임. 자동차 회사의 배출가스 중 상당 부분(98%)이 스코프3(주로 자동차 사용)에 해당됨. 투자 관점에서 자동차 회사는 화석연료 산업 만큼 탄소 직압적이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22년말까지 모닝스타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규 금융상품의 약 50%가 ESG 기반일 것으로 예측 하지만 이러한 ESG 등급은 기업의 실제 기후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보고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중요한 환경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ESG지수 2가지인 S&P와 MSCI ESG평가에서 탄소배출량의 반영 비율은 1%미만"이라며 "데이터의 일관되고 투명한 보고를 보장하기 위해 ESG 등급의 방법론을 규제하고 일치시킬 것을 EU에 요구한다"고 밝힘